

“남해안 관광허브·미래 산업 육성... ‘新강진’ 도약”

병오년 새해설계



강진원강진군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SOC와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인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

교통망 혁신·인재 양성 등 4대 분야

AI 데이터센터·스마트 농업 등 육성

4차 산업 접목 ‘미래 농업 모델’ 구축

강진원 강진군수는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모든 역량을 하나로 ‘연결’해 결실을 맺는 ‘신강진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올해 군정의 핵심 가치를 ‘연결을 통한 도약’에 두고 ▲교통망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농어업 소득 증대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강진-광주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30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이에 대비한

경제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관광과 물류,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남해선 철도 개통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 보성-순천 구간 조기 전철화 추진 등으로 강진을 서남부권 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그중 이날 전남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화하는 ‘강진만 횡단교’ 건설은 강진의 동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순환형 교통망의 마침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해선 철도 개통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마량-군동 국도 2호선 확장, 까치내재 터널 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문객 700만 시대를 열고 ‘서남부권 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신강진면전소의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무기로 ‘AI 데이터센터’ 유치로 통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

어 세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스타트업 유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 이를 통해 강진을 농업과 관광,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미래 도시’로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615억원의 농업예산을 투입해 벼 경영안정자금 확대, 축산 사료 지원 등 경영 안정책과 함께 ‘조류민육강진’ 유통망 확대와 쌀 수출 판로 개척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꾀한다. 농촌융복합 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강진형 미래 농업 모델’도 구축한다.

사람이 자원이 되는 ‘휴먼파워’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AI 디지털배움터, 청년대학, 신청년을 드대학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과 가업 2세 육성,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밖에 군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강진을 강변여과수 개발과 병영골골담·사방댐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에 805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강화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6년은 대형 SOC 확충이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강진 앞에 놓인 골든타임”이라며 “길이 열리고 자원이 연결되면 그 혜택은 오롯이 3만2천군민의 삶으로 스며들 것이다.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연결이 희망이 되는 강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미래 농업’ 전진기지로

최대 82ha...AI·스마트 기술 집약

내년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착공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를 앞세워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판도를 바꿀 ‘대전환’에 나섰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산면 일원에 조성 중인 농업연구단지를 AI·스마트 농업 기반의 선도 지구로 집중 육성한다.

이런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은 내년 착공해 2028년 본격 운영을 앞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이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로, 해남 농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와 발맞춰 총 82ha 규모의 국내 최대 농업연구단지에 관련 시설을 빠르게 집적화하고 있다.



이미 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 시설 등이 들어서 운영 중이다. 이어

지는 2단지에는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채소류 종자 전문 생산단지 등 첨단 기반 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이곳은 민간 기업의 R&D(연구 개발) 시설, 교육 연구원, 마늘·고구마 육종 시설 등이 더해져 ‘연구·현장 실증·기술 보급·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미래 농업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연구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거점”이라며 “농어촌 수도 해남이 AI와 스마트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시 신년 인사회...시정 방향·미래 비전 공유

각계 인사 참여...화합·도약 출발

내달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

2026년 새해를 맞아 나주시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화합과 도약의 출발을 알렸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희망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윤병대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13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앞서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져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더했으며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영상을 통해 관광도시 나주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국회의원과 내빈 소개에 이어 윤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재남 시의장의 신년사가 차례로



지난 6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신년인사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떡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지난해 나주시의 변화와 성과를 되짚고 새해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모았다.

나주시는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 시장은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도약의 해

가 될 것”이라며 “오는 2월2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어 나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500만 관광도시 나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 발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나주로 유치해 빛가람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완성하겠다”며 “새해에도 12만 시민의 행복과 나주 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정종환 기자

진도군, 취약계층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

3천854가구 난방·생계비 등

진도군이 올겨울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진도군은 7일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해 현재까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3천854가구에 총 9억1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은 난방비 3억4천600만원(1천160가구)을 긴급 투입한 것을 비롯해 김장 김치, 백미, 흑염소 전액 등 식료품과 건강식품을 전달했다.

특히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천866명의 독거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도 돋보였다. 군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 긴급 생계비(3억3천100만원), 의료비(2억900만원), 연료비 등을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119 생활안전순찰대’가 해결사로 나서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찾아가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 수리와 난방 용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진도군 관계자는 “작은 관심과 지원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겨울을 버티는 큰 힘이 된다”며 “오는 3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완도군 ‘농촌 지도 시범 사업’ 3월 본격 추진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등 신청

완도군은 7일 “올해 7억2천만원의 투입해 ‘농촌 지도 시범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도 시범 사업은 지역 농업기술 혁신과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추진하며,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 장치 시범 보급 ▲기후변화 대응 과수 정밀 농업 환경 개선 ▲한우 스마트 팜 번식 관리 시스템 등 총 16개 사업이 있다. 신청 대상은 완도군에 거주한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 법인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범 요인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 상담소,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선정 기준에 따라 완도군은 서류 심사, 현지 조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별 세부 내용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야생 ‘메귀리’ 기후위기 극복 미래 식량 자원 기대”

호남권생물자원관, 유전적 차이 규명

적박한 섬 환경에서 자생하는 야생 귀리(사진)인 ‘메귀리’가 기후 위기를 이겨낼 미래 식량 자원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7일 “서남해안에 서식하는 메귀리의 유전적 다양성과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귀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오트밀 원료)의 야생 근연종이다. 거친 바닷바람과 적박한 토양을 견디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재배 작물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강인한 생존 유전자를 품고 있다.

연구진은 목표, 진도, 군산 등 서남해안 8개 지역에서 수집한 메귀리를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GBS)로 분석한 결과, 총 2만836개의 유전적 변이(단일염기다형성, SNP)를 발견했다.

분석 결과 서남해안의 메귀리는 크게 두 개의 유전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특히 진도 지역 개체군은 타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국내 귀리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해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유전자원연구부 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자원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며 “확보된 유전 정보를 토대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분야 국제 학술지인 ‘BMC Plant Biology’에 지난해 10월 게재됐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버스승강장 10곳 추위 차단시설 설치

영암군은 “최근 관내 버스승강장 10곳에 추위 차단막을 설치하고,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7곳에는 별도의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가림막은 투명 아크릴 재질로 제작돼, 외부의 찬바람은 막아주면서도 승강장 안에서 버스 진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특히 군은 지난달 마을 순회 간담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이용률을 반영해 영암읍과 삼호

읍 등 어르신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군은 계절별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승강장 시설 정비와 교통약자 배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라며 “주민의견을 검토해 이번 달 안에 5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